

아버지가 가정으로 돌아오고 있다

7

‘좋은 아버지상’받은 경찰관 한진구씨

치안격무 틈쪼개 가족과 함께

소중한 가정 속에서 파출소 격일근무 피곤함 잊어

아들교육·자질구레한 집안일 챙기기도 ‘공동의 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요즘 신세대 가운데는 가정에서 자기 나름의 작은 행복을 가꿔나가는 좋은 남편·좋은 아버지들이 많다.

경찰관인 한진구(36·서울 동부경찰서 남부파출소 소속·경장)씨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기를 꿈꾸며 이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힐 만하다.

“별로 내세울 만큼 잘 한 일이 없다”고 겸손해하지만 그는 지난 11일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운영위원장 김동렬)이 올해 처음 제정한 제1회 좋은 아버지상에서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좋은 아버지’로 뽑혔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좋은 아버지와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가꿔가는 노력이 돋보여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찰관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들에 한번씩 24시간 근무할 정도로 늘 바쁜 하루하루이지만 그는 틈날 때마다 아내와 7살난 아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낸다. 여느 아버지들처럼 집에만 들어오면 “피곤하다”며 잠만 자거나 신문·텔레비전만 쳐다보고 있지 않는다. 즐겁게 아이의 놀이 상대가 되어주고, 아내와 집안일을 함께 나누어 한다.

“아내와 아이, 우리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한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문화체육관에서 펼쳐진 놀이마당 ‘이춘풍전’을 가족과 함께 구경했다. 전날 24시간 근무하고, 이날 아침엔 고압연합고사장 파견근무를 했는데도 한달전 아들 상민이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눈한번 못붙이고 나올 만큼 자상한 아버지이다.

“스스로 ‘좋은 아버지’라고 생

각하지는 않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는 노력한다’는 한씨는 지난해 12월3일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원이 되었다. 신문에 난 이 모임에 대한 기사를 보고 ‘이런 모임도 있구나. 나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커져 곧바로 회원으로 가입했다.

“좋은 아버지 모임에 가입한 뒤론 아내에게 맡겼던 자녀교육에 저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대화도 많이 나누고,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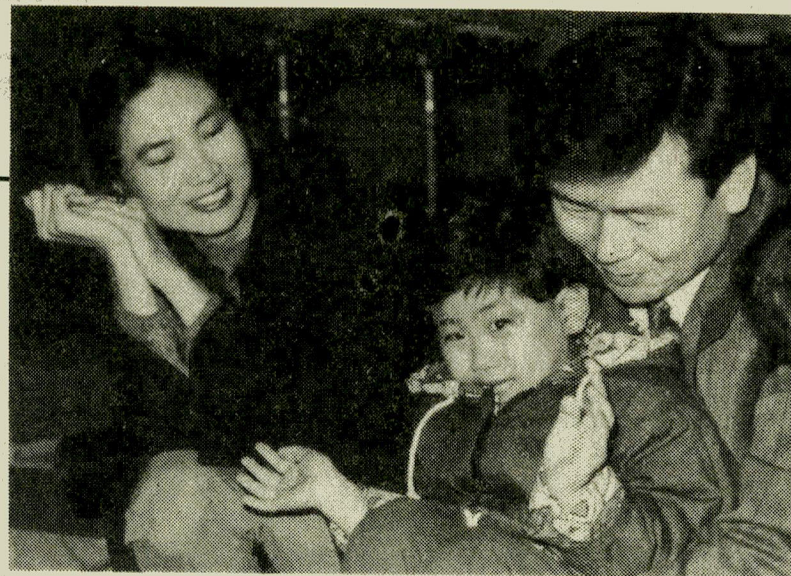
“좋은어머니 없인 안되죠”

한씨는 “좋은 아버지가 있으면 좋은 어머니가 있어야 하고, 부부 사이가 원만해야 자녀교육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이런 부부관, 가정관, 자

녀관은 가족이기주의가 아니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중심주의”라고 강조한다.

한씨가 가정에 기울이는 애정은 “마음 속에서 우러나 실천하는 작은 것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기뻐던” 아들 상민이가 태어난 날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해 그동안 7천장 가까이 찍었다. 이 가운데 3천장을 골라 상민이의 성장기록 앨범 15권으로 분류해 놓았다. 결혼할 때까지 계속 상민이의 자라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 결혼선물로 줄 생각이다.

이들에 한번 집에 오는 한씨는 상민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같이 놀고, 동화책도 함께 읽고, 저녁에는 동화책을 1~2권씩 읽어주며 잠을 재우는 ‘좋은 아버지’이다. 지난주에 읽어준 책은 시인 박재구씨가 쓴 창작동화 <아기참새 씨꾸>이다.



지난 9일 아근한 다음날인데도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춘풍전’을 관람하고 있는 한씨(오른쪽). “직업 못지 않게 가족과 가정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힘주어 말한다.

“무엇이든 많이 보여주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는 아내, 아들과 함께 ‘현장’을 많이 가본다. 자신의 일터인 파출소를 비롯해 병원, 시장, 소방서 등에 직접 데리고가 보여주고, 어린이들이 볼 만한 인형극·영화도 자주 보러간다. 아이 손 잡고 서점에 나가 보고싶은 책을 직접 고르게 하기도 하고,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도 가끔 가본다.

7살아들 성장사진 7천장

또래의 아이들보다 약한 상민이의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한번 꼴로 가족끼리 등산도 자주 간다. 아버지를 따라 5살부터 등산을 시작한 덕분에 상민이는 관악산 정상까지 거뜬히 올라가는 ‘꼬마등산가’이기도 하다.

이 다음에 커서 택시운전사가

되겠다던 상민이의 희망이 요즘은 카레이서로 바뀌어 다음주에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동차경기장에 데리고 갈 생각이란다.

한씨는 집안일에도 적극 참여한다. 부인 유경자(32)씨는 “남들은 경찰관이라 딱딱할 걸로 미루어 짐작하지만 워낙 가정적이어서 남편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고 자랑한다.

지금보다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한씨와 부인 유씨는 이달초부터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최하는 ‘부모역할 교육’ 강좌를 듣고 있다.

“가족을 위하고, 가정의 행복을 가꿔나가는 것은 아내의 몫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 일 아니까요.” ‘부부가 함께 하는 가정’을 강조하는 한씨의 말은 누구나 귀담아 들어볼만하다.

<신영순 기자> <끝>